



#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저주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가족사진: 장을 보고 돌아온 게이트 앞에서 (이라크 바스라 항구)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한국은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봄을 건너뛰고 다시 여름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지부티에서 10일간 3월 7~17일 머물며 짧고 굵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부티는 홍해가 시작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무역 상선들을 보호하기 여러 나라의 군대가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둔해 있는 나라입니다. 한편 선교적 관점으로 지부티는 기독교 박해가 약한 무슬림 국가인 것을 **여전히 95%의 높은 무슬림 비율이지만 박해 순위엔 없음** 감안하면 기독교 박해 순위가 높은 주변 국가들의 **소말리아 3위, 예멘 5위, 에리트리아 6위, 에디오피아 38위** [오픈도어 선교화-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2022년 통계]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저희가 지부티 방문을 준비하면서 알게된 것으로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곳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부티에는 선교사님 한 가정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오래 사역하시다 내전으로 넘어오신 여성 선교사님 한 분,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연락 장교 한 분 이렇게 7분의 한국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하는 한국어교실 사역에 같이 참석하여 현지인들과 즐거운 교제를 하기도 하고 선교사님 가정에 섬김을 받아 귀한 한국음식도 대접받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했던 지부티 서점 개장식에서



홍 선교사님 가정에 초청된 로고스호프 한인들



기독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 회화반에서 만난 예멘, 지부티, 소말리아 남성들

또 선교사님 가정에 아이들이 셋이나 되어 저희 주안이 이안이는 형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고 잊지 못할 추억도 생겼습니다. 서점에는 많은 인파가 하루에 몇 천명씩 찾아왔고, 저희 선교사들은 학교, 장애인센터, 페인트칠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부티는 박해는 없지만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일반 아프리카인들과는 생김새도 조금 다르게 생겼고, 종교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가고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언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선교사님가정이 하고 계신 한국어교실은 현재 50명정도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고, 50명정도의 대기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의 밤 행사를 하였는데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음식을 하여 연 행사는 현지인들의 주최로 진행되었고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생각보다 큰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인 사역자가 많지 않아 선교사님들께서는 더 많은 사역자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 학생들과 즐거운 교제 후에



선상 서점을 방문한 지부티 사람들



이라크 바스라에서의 불꽃놀이 환영식

지부티에서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잘 마무리 하고 저희는 3월 17일에 다시 출항하여 10일 간의 긴 항해 끝에 이라크 바스라 Basra 에 26일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바스라는 실존 인물 신밋드와 사담 후세인의 고향으로 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문명, 수메르 문명이 꽃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이번 이라크 방문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7월말 리비아에 방문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아랍국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서 동시에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희는 큰 기대없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는데, 처음 도착하자마자 불꽃놀이와 많은 인파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정박할 수 있었고, 바스라 지자체장과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성왕리에 선상 서점 개장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60여명의 통역사들을 붙여주고, 경찰과 군인들이 나서서 배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물과 정박료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며 심지어 서점에서 성경을 판매 할수 있게 허락해주는 등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10일간 쉬는 날 없이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여 지난 10일간 9만여명의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는 요 근래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신밋드와 로고스호프 친구들



선상에 오르는 바스라 학교 학생들



라마단 기간으로 새벽 1시까지 개장했던 서점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곳 현지사람들과 함께 한 대화입니다. 한 예로 송별회때 한 통역사가 감격하며 말하길, 본인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일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저희를 보며 이루었고,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너무 좋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눈 이야기는 저희의 모습에 감동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들의 마음이 저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들의 마음은 소망이 없고 가족 중의 한명이상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의 방문이 이들에게는 곧 저희가 가진 이름처럼 소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일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큰 환대속에 관심과 사랑 속에 저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들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바스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이따금씩 극단주의 세력이 가하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이 있기에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인 여선교사님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박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신 선교사가 9월부터 현재부서의 부서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이번달 정기 수리기간 동안 저희는 4월 24일에서 5월 23일 한달 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홀로계신 양가 어머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도 선교사 건강검진체크 **의사소견에 의한 일년에 한번 검진 권고**, 치과 검진과 파송교회와 협력교회와의 교제를 위해 한국방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어서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을 먼저 양해바라며 기회 닿는대로 만나 뵙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해줘서 고마워요”  
이라크를 떠나며 로고스호프를 환송한 해군, 해경, 예인선들



## 기도해주세요

1. 지부티와 이라크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 지부티와 이라크에 어려운 상황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3. 한국방문동안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로 잘 하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U.A.E. 라스 알카이마** 4월 10일 ~ 4월 17일

**U.A.E. 두바이** 4월 17일 ~ 4월 23일

**정기 정검 및 수리 기간** 4월 24일 ~ 5월 16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택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